

GNI 대비 수출입 비율 90% 육박

〈국민총소득〉

내수부진으로 무역 의존도 심화...작년 88.6% 사상 최고

건설투자 증가율 2년 연속 하락 '위축'

내수회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수출·수입액의 비율이 9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소비와 설비투자·건설투자 등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있어 무역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그만큼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NI에 대한 수출입액 비율은 88.6%로 2005년의 85.2%보다 3.4%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NI 대비 수출입액 비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0%대 중반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67.9%에서 98년에는 84.1%로 16.2%포인트나 경증 뛰었다. 당시 외환위기로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반면 환율급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단기간에 그만큼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이후 99년에는 이 비율이 75.1%로 낮아졌으며 인위적 내수경기 부양이 이뤄졌던 2002년에는 71.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GNI 대비 수출입액 비율은 2003년 75.8%로 반등한 후 2004년 86.2%, 2005년 85.2%에 이어 지난해 88.6%로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다. 수출입액 규모가 이처럼 국민소득의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소비와 설비·건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2002년 7.9% 증가하며 같은 해 경제성장률(7.0%)을 넘어섰던 민간소비는 이후 2003, 2004년 마이너스(-)1.2%, -0.3%로 2년 연속 감소

한 뒤 2005년 3.6%, 2006년 4.2%로 4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특히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3년 7.9%에서 2004년 1.1%로 뚝 떨어진 뒤 2005년(-0.2%), 2006년(-0.4%) 연속 감소하며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7.6% 증가했지만 위축된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선 적지않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GNI대비 총수출 비율은 44.8%를 나타냈으며 총수입 비율은 43.7%였다. 한편 관계자는 "2002년 카드사태 이후 부진한 내수부문을 수출이 만회하면서 한국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수출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완화하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문어발 브랜드 피하라”

공정위, 가맹점 창업시 주의할 7가지

“정보공개서가 없거나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는 피하세요.” 사업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퇴직자들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통한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으면 자칫 낭패를 보기 쉽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 정보제공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과 ‘창업전 지켜야 할 7가지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 희망자는 우선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를 피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임원의 범위와 사실,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조건 등을 담은 책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업체도 가급적 피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익 전망 자료를 요구해 서면으로 받아둬야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이길 수 있다. 초기 가맹금이 없다고 선전하는 업체나 교육, 교재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의심의 대상이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는 브랜드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고, 가맹점수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업체,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업체 등도 주의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창업전 지켜야 할 지침으로 우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본사와 물류시스템 등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신보다 앞서 계약을 맺고 창업한 가맹점주를 방문해 본부나 지원이나 홍보 여부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고, 가맹점의 폐업률도 확인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급아파트 전기 요금

내달 최고 400% 할증

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최고 400%의 할증료를 부과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전기요금 할증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공동사용량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 조정되고 상가 사용분은 별도로 과량되며 단일계약 아파트의 자녀가 많은 대가족은 할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동설비의 에너지 절약에 유도하기 위해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는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200kW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당초 공동사용량 적용기준을 세대당 월 100kWh를 넘으면 할증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지하주차장 등의 대량화로 인해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등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편의시설이 없어져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 이를 월 200kWh로 상향 조정했다. 또 중앙난방아파트에 대해서는 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겨울철(11~4월)에는 세대당 300kWh까지 할증제 적용이 제외된다. /연합뉴스

‘神의 직장’ 국책은행

‘시농만 퇴출제’ 논란

공공부문에서 인사 평가를 통해 하위 일정 비율을 퇴출시키는 인사 혁신방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들은 이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국책은행은 ‘최근 정부와 대기업들이 시작하고 있는 퇴출제도

산업은행 10년간 9명
수출입은 한명도 없어
기업은행은 공개 거부

를 이미 운영해오고 있어 따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해당 제도는 퇴출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은 직원 퇴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업은행은 1998년부터 업무수행

노력 부족으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근무기간 문란 등으로 업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선 배치한다. 후선 배치기간에는 연봉의 25%가 감액되며 대기발령 기간에는 연봉의 45%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라 후선발령된 인원은 199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0년 가까이 단 9명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업무 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관리능력 개발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 후선발령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단 1명도 해당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2002년부터 후선발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기관과 대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퇴출제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후선발령 인원의 사유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후선발령 인력 현황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연합뉴스



우리당 지도부 개성공단 방문. 정세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6일 개성공단을 방문. 로만슨 시계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정 의장 일행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북한측 관계자들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땅테크’도 수준급

부동산 가치 1조8천억 올라...대기업 6조원 상승

지난해 삼성전자가 보유땅값이 크게 오른 데 힘입어 대기업 중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자산 불리기’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주사와 3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이들 기업들의 전체 보유 토지(공시지가 기준)와 건물(장부가 기준) 가치는 전년 대비 6조4천287억원(9.79%) 증가한 72조69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상승에 힘입어 토지 가치가 39조7천735억원으로 전년대비 13.03% 늘었고 기업들의 신규 시설투자에 따라 건물가치도 증가상향에도 32조2천958억원으로 6.05%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8조9천80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8천47억원(25.15%) 증가하며 단연 돋보이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30대 기업 전체 부동산 가치 순증 금액의 28%를 삼성전자의 증가분이 차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유 토지가치가 3조5천23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01% 크게 늘었고 건물 가치 역시 신규 시설투자 등

■ 주요기업 보유 부동산 가치 증감현황 (단위: 억원, %)

주요기업	토지가치(공시지가)		건물가치(장부가)		토지+건물	
	2006년말	증감률	2006년말	증감률	2006년말	증감률
삼성전자	35,238	34.01	54,564	20.03	89,802	25.15
POSCO	28,063	6.03	18,487	0.39	46,550	3.72
한국민영	13,071	23.38	7,968	2.87	21,039	14.72
한국전력	50,290	15.85	19,267	-0.50	69,557	10.81
SK텔레콤	5,068	22.77	8,606	-3.53	13,674	4.79
하이닉스	2,725	16.77	7,853	3.85	10,577	6.89
현대차	22,663	11.56	26,346	13.82	49,009	12.77
현대중공업	11,197	5.72	13,959	4.22	25,156	4.88
LG필름스CD	4,032	9.92	16,184	-0.90	20,216	1.09
KT	48,024	11.99	29,139	0.83	77,163	7.50
SK	12,071	-19.74	3,009	-11.95	15,080	-18.30
신세계	21,410	20.82	22,278	6.52	43,688	13.08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으로 20.03% 불어난 5조4천56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가치의 경우 토지 신규취득보다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보유 부동산 규모 면에서도 상장사 중 최상위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기업인 KT는 작년 말 기준 부동산 가치가 7조7천163억원으로 전년대비 7.50% 증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갑부 기업의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줬다. KT는 보유 토지가치가 4조8

정몽구 회장 작년 275억 배당...4년째 1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작년 상장사 배당금이 275억원으로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기업과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제외한 자산기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주요그룹 주요주주 배당현황'에 따르면 정 회장의 작년 배당금은 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3% 줄었음에도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의 158억원을 큰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 이 회장의 작년 배당금은 전년 대비 1.36%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어 허창수 GS그룹회장의 배당금이 143억원, 구본무 LG그룹회장 91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82억원 등으로 5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10대그룹 총수들의 작년 전체 배당금은 81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도보다 5.

■ 10대그룹 총수 배당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그룹	주요주주	2006년말	증감률
삼성	이건희	15,842	-1.36
현대자동차	정몽구	27,594	-16.23
SK	최태원	2,710	5.66
LG	구본무	9,116	1.92
롯데	신격호	1,303	60.05
GS	허창수	14,303	0.98
한진	조양호	1,045	-62.26
한화	김승연	8,231	25.91
두산	박용근	-	무배당지속
금호아시아나	박성구	1,448	27.53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05% 줄었으며, 정몽구 회장의 몫은 이중 33.8%에 달했다. 정 회장은 2003년 배당금이 227억원으로 이견회 회장의 161억원을 제치고 선두로 나선 이후 4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수 인재 잡아라” 열린 채용 활기

기업들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력이나 나이·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26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달 11~23일 상반기 신입행원을 모집하는데 기업은행과 개인금융 부문은 학력이나 학점·나이·어학능력 등에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사무·기술분야에서 신입직원 200여명을 뽑는다. 사무분야는 750점, 기술분야는

600점 이상의 토익점수를 소지한 사람이면 학력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기술분야 지원자는 해당분야 전공자나 기사자격 보유자여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30일까지 사무·기계·전기 등 8개 분야에서 상반기 신입직원 200여명을 뽑는데 학력과 나이 제한을 없앴다. 한편원자력연료도 학력이나 성별 제한 없이 사무·기술부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토익 70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류는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화인코리아	㈜화인코리아 정규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9	061-330-4510
MCRSOFT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개발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9	011-819-0911
태성산업(주)	경리/회계/지급 경력사원 모집공고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3/30	062-953-2300
㈜신성금융	경리/문서작성/경리보조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30	011-644-0060
㈜에코닉스	현장관리/영업지원/관공서 영업관리 사원모집	대졸/경력2년	1600~1800	03/30	062-352-7001
지에프텍	전자부품 생산직 남자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30	062-973-1871
㈜니켈인터내셔널	무동파코호텔 로비 보안 매니저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231-1561
㈜미라스시스템	인터넷쇼핑몰 MD/ 상품등록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10-9885-1111
㈜켄스텍	광주 호남대 광신캠퍼스 보안요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31	016-631-4737
두손텍	생산 및 생산보조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430-1971
동신대학교학원학원	국비지원 일본 IT기업 정규직 취업교육생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국비지원	04/03	061-330-3482
㈜유로넷	[주5일] SK텔레콤(광주) 114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07	02-780-9559
㈜미주통신	경리/급여 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7	062-375-1900
우양물산	경리/경리보조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62-603-006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우리은행장에 박해춘씨 선임

박해춘 전 LG카드 사장이 진풍 끝에 선임 우리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우리은행은 26일 오전 오전 23층 회의실에서 2006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해 박 전 사장을 선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이순우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 집행부장을 부행장으로, 양원근 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사외이사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김민환 국민대 총장(신임), 하성근 연세대 상경대 경제학부 교수, 윤경희 ABN암로증권 한국대표, 최경수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현철 예금보험공사 혁신기획실장, 김한주 동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연합뉴스